



## 뉴욕주립대 음대 교수로 임용된 피아니스트 탁영아 부산에서 펼쳐낸 베토벤 ‘황제’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지난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기획연주 '세계를 빛낸 부산출신 피아니스트들-콘체르토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무대에 올랐다. 탁영아는 이 공연에서 지휘자 이병욱이 이끄는 KNN방송교향악단과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협연하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라모폰>으로부터 "세련되고 진지한 피아니스트"라는 호평을 받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줄리어드 음대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거쳐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 과정 중 피바디 예비학교 교수와 플로리다 사우스이스턴 음대 교수로 활동하였다. 뉴욕 링컨센터, 카네기 웨일홀, 필라델피아 김멜 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 등 세계 주요 공연장과 통영국제음악제, 부산국제음악제 등에서 선보인 연주로 호평받았으며, 라비니아 페스티벌, Music@Menlo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제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한편, 탁영아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주 포츠담에 위치한 뉴욕 주립대 음대(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Potsdam) 피아노과 교수에 동양인 최초로 임용되며, 오는 9월부터 뉴욕 주립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게 되었다. 뉴욕 주립대 캠퍼스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포츠담 캠퍼스는 올해로 200주년을 맞았다. 음대인 Crane School of Music은 1886년에 세워진 명문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음대 중 하나이다. 현재 약 6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그동안 르네 플레밍, 스테파니 블라이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배출해왔다. 음대 학장인 마이클 시튼(Michael Sitton)은 탁영아의 임용과 관련해 "이번 공채에 여러 나라의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지원했다. 활발하고 뛰어난 연주자로, 또 유능한 교수로 피아노 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탁영아가 우리 학교에 부임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학교에 기여할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리더십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뉴욕 파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소속인 탁영아는 오는 10월, 미국 임페리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해 필라델피아와 뉴욕, 플로리다 등지에서 독주와 실내악 연주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연주활동과 더불어 뉴욕주립대 음대 교수이자 사우스이스턴 대학의 상주 음악가(Artist-in-Residence)로서도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